

제2의 중보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별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도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식은 “주기도”이며, 성경에서나 다른 곳에서 기도의 예들이 발견될 수 있으나 항상 “주기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일곱째, 기도의 다양한 실천에서 하나님과 성령의 절대적인 자유가 중요하다. 그러나 깔뱅은 인간의 약점과 훈련을 목적으로 특정한 시간, 장소 등을 개인이나 교회공동체가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덟째, 개인기도에는 성령과 믿음과 말씀을 통한 진실한 마음과 영혼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공중기도에는 개인기도와 동일한 정신을 전제하는 동시에 교회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중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깔뱅의 기도론은 성서적, 신학적 원리에서나 목회적, 실천적 차원에서 오늘날 21세기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도 훌륭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역동성과 현실성이 있는 기도론으로 간주된다.

## 4 칼뱅의 교회훈련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

안은찬 목사 / 충신대 강사, 실천신학

### 1. 서 론

현대 목회자는 자기의 소견대로 목회하는 면이 많다. 특히 교인들을 양육하는 영역에서 ‘훈육’(discipline)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장은 미래의 훌륭한 기독교인 육성이라는 면에서 불길한 예감이 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기에 평생을 목회에 헌신한 장 칼뱅(Jean Calvin)의 목회신학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그가 실천한 교회 훈련(church discipline : Kirchenzucht)은 목회신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훈련에 대한 기존 이해는 주로 차갑고 무차별적이며 물인정한 ‘징계’와 ‘치리’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sup>1)</sup>

1) Richard R. De. Ridder, “John Calvin’s on Discipline : A Comparision of the Institution of 1536 and the Institutes of 1559,” in *Articles on Calvin*

그의 교회훈련은 현대 목회 실천과 목회학 분야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면이 있어 왔다. 20세기 현대 목회신학의 대가 힐트너(Seward Hiltner)는 그의 기념비적 목회신학 저서 「목회신학원론」에서 칼뱅은 「영혼의 병의 치료」(Seelsorge)나 「목양」(shepherding)에 관해서 아무런 글도 써 놓고 있지 않았다고 혹평하였다.<sup>2)</sup>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는 칼뱅의 교회훈련에 대한 혹평에서 비롯된 것이다.<sup>3)</sup>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목회자 칼뱅의 교회훈련의 본질과 실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목회신학적인 평가와 적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실천적 적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칼뱅의 교회훈련의 본질

칼뱅의 교회훈련은 매우 폭넓은 개념이다.<sup>4)</sup> 본래 ‘훈련’(discipline ; Zucht)이란 학교라는 뜻의 ‘disciplina’에서 온 말로 가르치고 배우는 영역의 용어이다. 그러나 학교로부터 추출된 교회 메타포는 칼뱅의 교회훈련의 본질을 다 포괄하지 못한다. 오히려 호플(Harro Höpfl)이 지적하였듯이 억제와 교정이라는 칼뱅의 교회훈련의 개념은 교회의 권세(potestas)를 대신하는 제국적 에이전트나 메신저로서의 메타포에 의해 형성되었고, 영적 재판권(jurisdictio)과 행정권(gubernatio)을 가진 교회의 직무 개념에서 형성되었다. 더 나아가 칼뱅의 교회훈련은 보다

and Calvinism Vol. 10,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 Garland Publishing, 1992), 293.

2) Seward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Nashville : Abingdon Press, 1958), 43.

3) Ibid., 66.

4) ‘훈련’(discipline)의 개념이 단지 벌이나 징계 이상으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현대 목회신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Cf. Don. S. Browning, *The Moral Context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 Westminster, 1976), 60.

더 다른 메타포와 혼합되어 있다. 즉, 교회훈련은 어머니와 학교로서의 교회 메타포와 연계되어 아버지의 매(fatherly rod)와 고삐(bridle)와 박차(spur)로서 서술된다.<sup>5)</sup>

필자는 네 가지 관점에서 칼뱅의 교회훈련의 본질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이다. 그의 교회훈련은 하나님의 목양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회훈련은 ‘돌봄’ 혹은 ‘양육’이다. 징계와 같은 훈련은 벌 자체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돌봄 혹은 양육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칼뱅의 ‘교회훈련’의 의미는 징계와 치리의 차원을 넘어 보다 깊은 목양적 차원이 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초한 양육과 돌봄을 여러 곳에 강조하였다.<sup>6)</sup> 칼뱅은 교회훈련의 첫 기초는 사적인 권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설교와 심방을 중요한 수단으로 지적하고 있다.<sup>7)</sup> 교회훈련은 몸의 지체들이 자신의 위치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교회의 근육과 같은 것으로써 설교 이외에 교리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권면(private admonitions), 시정(corrections), 다른 종류의

5) Harro Höpfl,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3–204.

6) 칼뱅의 목회적 돌봄의 근거가 되는 양육 사상들은 그의 성경 주석에 많이 나타나 있다. Cf. John Calvin, *The Four Last Books of Books of Moses arranged in the Form of a Harmony*, trans. by The Rev. Charles William Bingham, vol. I (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852 ; reprint 1963), 317. 이 주석은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에서 1843~1855년 사이 출판된 것을 재판한 것으로 이후 구약 주석 인용은 이 원서를 사용하기로 한다; *Comm. Isa. 1:4 ; 49:21 ; 51:19 ; 54:13*; John Calvin, *The Acts of the Apostles*, ed. David W. Torrance & Thomas F. Torrance, trans. by John W. Fraser, vol. II (Edinburgh : Oliver and Boyd, 1965, reprint, 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60. 이후 신약성경 주석 인용은 이 원서 시리즈를 사용하기로 한다.

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V,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2), 12, 2. 이하 인용된 「기독교 강요」는 *Inst.*로 표기한다.

보조수단(other aids of the sort)<sup>8)</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칼뱅이 교회훈련을 목회적 돌봄의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다.

둘째는 훈육(discipline)이다. 칼뱅의 교회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이다.<sup>9)</sup> 그는 교회훈련은 “그리스도의 영의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질책하는 아버지의 매”<sup>10)</sup>와 같다고 했다. 이것은 부드럽게 처리를 받았으면 더욱 고집을 부렸을 사람들이 자기 악행에 대해 매를 맞고 각성하여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1)</sup> 그는 목회자들이 징계의 매를 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는 날카로운 책망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sup>12)</sup> 특히 ‘열쇠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부분인 금식과 기도에 대한 교회훈련은 목사의 권고로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던 관례적 목회 행위임을 지적했다.<sup>13)</sup>

셋째는 상호적 교화(edificatio mutua)이다. 교회훈련은 교제의 차원에서 동료 신자와의 화해를 포함한 하나님과 신자의 화해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칼뱅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때에 형제에게 충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다.<sup>14)</sup> 이것은 형제애적 꾸지람(correptio fraterna)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교화 수단이다.<sup>15)</sup>

넷째는 교회통치(church government)<sup>16)</sup>이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 재

판권에서 나오는 것으로 “교회를 건전하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하나 됨을 지속시키는 최선의 수단”<sup>17)</sup>이다. 칼뱅은 교회훈련을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 지배라고 지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치리는 본질상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특별하고 영적인 지배임을 참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치리라는 말은 적당한 용어라 할 수 없고 자기 율법의 교훈에 따라 자신의 지배 아래 모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이것은 교회훈련을 하나님의 심판과 악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칼뱅이 이해했던 권징으로서 출교(excommunication)는 결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며, 그것은 교회의 저주 선언(anathema)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부르시는 질책과 경고이다.<sup>19)</sup> 그가 “훈련을 폐지하거나 그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의로 하든 또는 모르고 하든 간에 결국 교회를 해체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sup>20)</sup>고 경고한 것은 교회가 영적 지배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교회의 재판권을 통해서만 이 개념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sup>21)</sup>

8) *Inst.*, IV, 12, 1.

9) *Inst.*, IV, 12, 12.

10) *Inst.*, IV, 12, 1.

11) *Inst.*, IV, 12, 5.

12) *Comm.* 1 Cor. 4 : 21.

13) *Inst.*, IV, 12, 14-20 ; 22-28 ; 18, 1-7 ; 8-21. Cf. 칼뱅의 교회훈련의 특이한 점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교인들의 금식, 맹세, 독신주의, 그리고 수도원생활 등을 교회훈련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칼뱅의 교회훈련이 단순히 ‘치료’, ‘징계’의 차원이 아님을 서술 전개방식으로도 알 수 있다.

14) *Inst.*, IV, 12, 2.

15) *Inst.*, IV, 12, 5.

16) 이 용어는 교회법과 종교권력적 정치 활동을 의미하는 ‘교회정치’라는 말보다 교회를 다스린다는 개념을 포괄하는 보다 고전적인 용어이다. 그러므로 현대 정치학의 ‘전통적 지배’(traditionale Herrschaft)나 현법학의 ‘통치행위’(act de gouvernement ; Prerogative ; Regierungsakte)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Cf. 홍성방, 「현법학」(서울 : 현암사, 2002), 666-69.

17) *Inst.*, IV, 12, 5.

18) *Comm.* Ps. 67 : 6.

19) *Inst.*, IV, 12, 10.

20) *Inst.*, IV, 12, 1.

21) *Inst.*, IV, 12, 5.

### 3. 칼뱅의 교회훈련에 대한 목회적 실제

칼뱅의 교회훈련에 대한 목회적 실제는<sup>22)</sup> 칼뱅의 설교문과 편지들 및 세례와 교리문답에 관한 문헌들, 그리고 교회법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칼뱅의 목회는 당회(Consistory)가 중심체이기 때문에 필자는 제네바 교회 컨시스토리 회의록(The Resisters of the Consistory)을 중심으로 칼뱅의 교회훈련의 실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 회의록은 1542년에 개최된 컨시스토리의 소집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들의 마을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감독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본을 보여 주기 위하여 컨시스토리가 소집되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sup>23)</sup>

이러한 목적을 가진 컨시스토리의 소명 사건이 일반적 목회활동의 빈도에서 교회훈련의 영역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이 훈육의 차원을 갖는다는 점에서 당시 소명 사건을 분석함으로 교회훈련의 성격을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컨시스토리에 대한 기존 연구는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에 의해 사회사적 접근을 넘어 진일보했으며,<sup>24)</sup> 국내의 경우 이정숙에 의해 목회

22) 칼뱅은 제네바에서 1536~1538년까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1538년 9월~1541년 9월까지, 그리고 1541~1564년까지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하였다.

23) *The Res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Thursday, October 12, 1542.*

24) 로버트 킹던에 의하면 컨시스토리는 1541년에 제정된 제네바 교회법 (Ordonnances Ecclesiastiques)에 따라 1541년 말에 세워진 심리 법정(a hearing court), 강제적인 상담기관(a compulsory counseling service) 및 교육기관(an educational institution)이었다고 한다. Cf. Robert M.

기관으로서 당회의 성격을 규명한 것은 그동안 컨시스토리를 강압적인 처벌 기관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을 감안하면 보다 신선한 접근이다.<sup>25)</sup> 필자는 컨시스토리 1542~1544년 영문판을 목회신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sup>26)</sup>

필자가 분석한 776건의 당회 소명 사건은 거의 모든 소명사건에 화해와 권고 형식의 훈계가 결의사항으로 끝나고 있다. 이것은 해별의 건수가 극히 적다는 점을 보더라도 확인된다. 소수의 미해결의 문제만 제네바 시 당국으로 넘겼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칼뱅의 목회사역의 특징은 보다 다양하게 교인들의 삶의 실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컨시스토리 각 사건별 분포를 분석한 아래 도표 ‘컨시스토리 연도별 빈도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도표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설교와 신앙교육, 그리고 가정과 사회적인 문제들로 교회훈련 프락시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4. “Calvin and the Family : The Work of the Consistory in Geneva,” in *Calvin's Work in Geneva*, ed., Richard C. Gamble(New York : Garland Publishing, 1992), 96.

25) 이정숙, “제네바 컨시스토리 : 칼빈의 신학과 목회의 접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2000), 159~85. “칼빈 연구의 최근 동향 : 제네바 컨시스토리 문서 1권의 영어판 출간에 즈음하여,” 「신학사상」, 제111집(2000, 겨울), 231~46.

26) 물론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칼뱅 사역기간 때의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연구자인 19세기 중엽의 Frédéric-Auguste Cramer의 경우 1514~1814년 기간 동안의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읽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 칼뱅의 재임기간 동안의 컨시스토리 원본은 22권으로 존재하고 있다. Cf. *Resistres du Consistorie de Genève : au temps de Calvin*, eds., Robert M. Kingdon, trans. M. Wallace McDonald, *The Res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vol. I : 1542~1544(Grands Rapids : Eerdmans, 2000), Preface XI.

&lt;컨시스토리 연도별 빈도수&gt;

| Type      | Total | 1542           | 1543          | 1544         |
|-----------|-------|----------------|---------------|--------------|
|           |       | (2. 16-12. 28) | (1. 4-12. 27) | (1. 10-7. 3) |
| 신성모독      | 8     | 2              | 5             | 1            |
| 기톨릭/개혁신앙  | 65    | 23             | 36            | 6            |
| 교리/이단     | 2     | 1              | 1             | 0            |
| 설교불참      | 104   | 46             | 41            | 17           |
| 설교물이해     | 15    | 13             | 1             | 1            |
| 성례/예배     | 36    | 18             | 10            | 8            |
| 신앙교육      | 96    | 56             | 35            | 5            |
| 심방/구제     | 2     | 2              | 0             | 0            |
| 주술/미신     | 18    | 6              | 7             | 5            |
| 결혼/이혼     | 87    | 42             | 26            | 19           |
| 부부갈등      | 64    | 29             | 21            | 14           |
| 가정불화/문제   | 40    | 19             | 16            | 5            |
| 성적 방종     | 72    | 30             | 23            | 19           |
| 이웃 간의 싸움  | 60    | 13             | 26            | 21           |
| 형사적 범죄    | 8     | 2              | 2             | 4            |
| 민사적 문제    | 14    | 1              | 7             | 6            |
| 음주/도박/방탕  | 34    | 10             | 18            | 6            |
| 욕/풀언      | 9     | 4              | 2             | 3            |
| 노래/춤      | 10    | 9              | 1             | 0            |
| 불복종       | 15    | 11             | 3             | 1            |
| 해별        | 3     | 3              | 0             | 0            |
| 당회/카운실 운영 | 12    | 3              | 4             | 5            |
| 타 시와의 관계  | 2     | 1              | 0             | 1            |
| Total     | 776   | 344            | 285           | 147          |

필자는 위 컨시스토리 소명사건 중 몇 가지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함으로 교회훈련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당회는 프랑세스에게 왜 기혼녀로서 남편과 떨어져 사는지 물었다. 그녀는 직업 때문에 남편이 오랫동안 오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당회는 그에게 신앙과 신조에 대해 질문했으나 그녀는 잘 설명하지 못했다. 당회는 3주 동안 반복적으로 공부하여 남편과 함께 오도록 권면하였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러 갔다. - March 2, 1542.

[사례 2] 고농은 도박으로 인해 리용에서 6개월 살다가 돌아왔다. 자녀들이 죽었지만 충동적으로 도박을 계속해 왔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다른 젊은이들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떠나 버렸다. 그는 주기도문과 신앙고백을 잘 하지 못하였다. 당회는 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준다면 이번만 놓아 주기로 하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강한 훈계를 하였다. - April 12, 1543.

[사례 3] 맷돌 석공 글라우드 팔카즈는 동료 로랑드에 대해 자기들의 아내들의 단점을 말하여 서로 미워하고 있었지만 서로 해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들은 서로 평화하기를 원했다. 다음 주 성만찬을 앞두고 당회 앞에 우정의 표시로 서로 화합하기로 약속하였다. - May 25, 1542.

[사례 4] 장느 페르펭아즈는 항상 이전 시대의 종교형식을 고수해 왔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때때로 묵주기도를 한다. 그녀는 이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 제네바 교회가 좋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녀는 칼뱅이 하나님이냐고 물었다. 당회의 의견은 그녀가 성만찬과 교회의 연합에서 이탈되었음으로 설교를 자주 듣도록 하고 월요일 카운실 소명을 결정하였다. - March 20, 1543.

물론 위의 컨시스토리는 지금의 당회와 사뭇 다르다. 지금의 당회는 교회의 사업과 인사에 치중된 반면 당시의 당회는 성도의 생활과 신앙

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의 지침도 주고 있다. 교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당회가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지도해 주고 있다. 여기서 교회훈련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 교회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문제를 해결할 때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선하고 덕이 되는 쪽으로 타협과 화해를 유도하였다. 위의 사례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컨시스토리의 교회훈련 사역은 목회적 돌봄(사례 1), 훈육(사례 2), 상호적 교화(사례 3), 교회통치(사례 4) 등의 성격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은 단순히 칼로 제단하거나 벌을 주는 그런 의미의 사법적 사역이 아니었다. 물론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로써 교회훈련을 실천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사람들을 성령의 고결함을 가지고 온유한 심정으로 징책(懲責)한 것이다.<sup>27)</sup> 그러므로 칼뱅의 눈에 교회훈련은 목회적 수단이었으며, 그것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온전한 신앙을 정착시키려는 영혼의 목자로서의 피나는 노력이었다.

#### 4. 칼뱅의 교회훈련에 대한 목회신학적 평가

##### 1) 개념적 평가

필자는 앞에서 칼뱅의 교회훈련의 개념을 목회적 돌봄, 훈육, 상호적 교화, 교회통치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이 개념들을 중심으로 현대 목회신학자들이 칼뱅의 교회훈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부정적 평가는 칼뱅의 교회훈련의 개념이 ‘형벌’이라는 견해이다. 힐트너의 경우 교회훈련이 어린이에 대한 돌봄과 형벌학(penology)

27) T. H. L. Parker, *Portrait of Calvin*(London : SCM Press Ltd. 1954), 90.

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sup>28)</sup> 더구나 힐트너는 교회의 기능으로서 ‘합리적인 훈련’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권위적인 훈련’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칼뱅의 교회훈련을 목회적인 기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sup>29)</sup> 영혼의 치유로서 칼뱅의 교회훈련은 종교개혁의 좌파들에게 공격을 받아 왔고,<sup>30)</sup> 오늘날도 개인의 영적 성장과 복지를 강조하는 그 후예들은 칼뱅의 이 목회 실천 양식으로서 교회훈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칼뱅의 교회훈련이 너무 경직되어서 개인의 성장에 장애를 가져 왔고, 교회와 개인의 안녕 중 교회를 우선시하는 중세교회의 훈련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혹평한다.<sup>31)</sup> 이기춘은 힐트너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나 컨시스토리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칼뱅의 교회훈련 실제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sup>32)</sup> 이러한 평가는 칼뱅의 교회훈련이 갖는 통전성과 프락시스적인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둘째, 긍정적 평가는 칼뱅의 교회훈련 자체를 목회의 본질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리차드 박스터(Richard Baxter)의 경우 교회훈련을 목회(the oversight of the flock)의 본질론에서 다루고 있다.<sup>33)</sup> 또 ‘말씀의 전달’을 목회 개념으로 규정한 투르나이젠(Eduard Thurnysen) 같은 목회신학자는 칼뱅의 목회 개념은 교회훈련이라고까지 잘라 말했다.<sup>34)</sup> 투르나이Zen은 칼뱅의 교회훈련이 중세의 것을 전수해 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 놓

28)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66.

29) Ibid., 67.

30) 종교개혁의 좌파들이란 교회의 공동체 질서보다는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두는 자유파를 의미하며 목회신학적인 관점에서는 극우파인 가톨릭교회의 사목신학에 대응하는 호흡이다.

31)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66.

32) 이기춘,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서울 :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140.

33) Richard Baxter, *The Reformed Baxter*(Portland : Multnomah Press, 1982), 82–84.

34) Eduard Thurnysen,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목회학원론」(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0), 25–43.

았다고 평가한다.<sup>35)</sup> 투르나이젠에 의하면 칼뱅의 교회훈련의 본질은 목회이자 곧 말씀의 전달이다. 투르나이젠의 교회훈련으로서 목회 개념은 “교회를 형성하고, 생존케 하며, 개개인을 영적인 타락과 부패에서 건져내서 삶을 보존시켜 주는 성화와 훈련의 행위”<sup>36)</sup>이다.

힐트너 이후 크레브쉬(William A. Clebsch)는 목회적 돌봄을 치유(healing), 지탱(sustaining), 인도(guiding), 그리고 화해(forgiveness discipline)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고, 칼뱅의 교회훈련도 그의 목회 본질 중에 하나인 화해(reconciliation), 곧 ‘용서훈련’으로 보고 있다.<sup>37)</sup> 최근 미국의 목회신학자 퓐베스(Purves)는 칼뱅의 교회훈련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시키는 줄(the ligaments)과 같은 것이며, 목회사역은 설교나 성례 안에서 주어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권면’(admonitio privata)이라고 말했다.<sup>38)</sup>

필자가 보는 칼뱅의 교회훈련은 영혼의 치유(cura)와 감독(superintendence)이라는 큰 영역 안에 목회적 돌봄과 상호연계성을 가지는 목회적 훈육 프라시스라고 본다. 이것은 고전적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의 차원에서 한 교인씩을 사적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동료 교인 사이를 공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나누는 견해<sup>39)</sup>를 지양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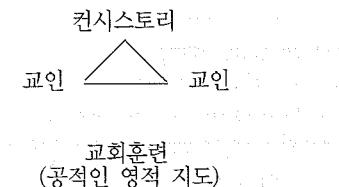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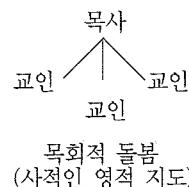
35) Ibid., 25.

36) Ibid.

37) William A. Clebsch & Charles R. Jackle,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New York : Harper & Raw, 1967), 27.

38) Andrew Purves, *Reconstructing Pastoral Theology*(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4), 153–54.

39)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를 중심으로 개념 규정을 도표하면 다음과 같다.



다. 왜냐하면 훈육의 개념으로서 교회훈련은 반드시 컨시스토리 영역 안에서만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적인 돌봄의 프라시스의 연장선에서 컨시스토리의 상담과 권고와 훈계 등 훈육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sup>40)</sup> 따라서 필자는 교회훈련을 중복적 병렬 프라시스로 파악한다. 중복이라는 의미는 칼뱅의 목회 개념인 ‘영혼의 치유와 감독’<sup>41)</sup> 안에서 사적으로, 공적으로 영적 지도가 겹친다는 의미이고, 병렬이라는 의미는 목사의 고유 영역에서 ‘관습적으로’<sup>42)</sup> 실천하는 목사의 권고로서 목회적 돌봄과 컨시스토리 영역 안에서 공적인 권고가 고유의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현대 목회신학이 목회적 돌봄이나 상담 등 주로 문제 중심적 학문 경향으로 돌봄(care)과 훈련(discipline)을 분리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돌봄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이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훈련을 왜소화시킬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칼뱅의 교회훈련이 갖는 목회적 위치와 관련 그 한계가 문제가 된다. 투르나이Zen은 개혁교회의 목회적 프라시스가 탈선과 한계를 넘은 것은 칼뱅의 교회훈련을 “단순한 치료제로, 그리고 용서를 베풀어 주는 수단이요, 방편으로”<sup>43)</sup>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오용된 사례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Heidelberg Katechismus) 제85항에서 이웃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훈련에 의하여 어떻게 열려지고 닫혀지는가?”에 대한 물음에 오직 ‘그리스도인의 회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40) 칼뱅은 사적인 영적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f. David G. Benner, *Care of Souls : Revisioning Christian Nature and Counsel*(Carlisle : Paternoster Press, 1998), 31.

41) 안은찬, 「칼뱅의 목회신학」(서울 : CLC, 2007), 101–120.

42) Inst., IV, 12, 14. Cf. 칼뱅은 목사의 권고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지만 교회의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관례로 인식하는 분야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공적 금식’과 ‘특별기도’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 실천 개념도 분명히 교회훈련의 영역으로 말하고 있다.

43) Thurnysen,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목회학원론」, 36.

한계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성만찬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의 수단으로 삼는 교회훈련의 입장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목회는 결코 죄를 용서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못 박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sup>44)</sup> 그러나 필자는 칼뱅의 교회훈련이 용서를 베풀고 거부하는 천국 열쇠의 시혜와 차단이라는 형식적 기능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체험을 목회권의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선포하고 확증하는 것이라고 본다.<sup>45)</sup>

## 2) 목회신학사적 평가

‘목회’<sup>46)</sup>의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있었지만 ‘목회신학’(pastoral theology)은 근대 이후에 성립된 것이다.<sup>47)</sup> 칼뱅의 교회훈련이 갖는 목회신학사적 의미는 목회와 교회훈련이 갖는 개념적 영역과 관련이 있다. 일부 신학자들은 목회가 교회활동의 자주적인 행태로서 형성된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최초로 대두되었다고 주장한다.<sup>48)</sup> 즉, 목회의 유형을 중세의 ‘사죄로서의 목회’, 종교개혁 시대의 ‘교육으로서의 목회’, 경전주의에서의 ‘권면으로서의 목회’로 분류하고 교회 프라시스의 주도적 양식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신자들을 돋는 행위를 목회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의 프라시스를 목회, 설교, 교육이라는 3대 영역으로

44) Ibid., 38.

45) *Inst.*, III, 4, 14; IV, 1, 20–22; 3, 6; 12, 1; *Comm.* Acts 20:20.

46) ‘목회’는 사전적 어휘로 명사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떼를 돌본다는 성경적 비유의 언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목양’(牧羊 : shepherding)을 일반적으로 ‘목회’라고 지칭하지만 우리는 목회를 교회에서의 목사의 사역(pastoral ministry)의 의미로 사용하되 교회 회중 전체와의 관계까지 아우르는 꼭넓은 실천 개념으로 사용한다.

47) 목회신학이 학문적 분과로서 정립된 것은 독일에서 클라우스 하름스(Claus Harms)가 1830년에 「목회신학」(Pastoraltheologie)을 저술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Cf.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43.

48) 박근원, 「현대목회실천론」(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9), 253–59.

한정하고, 이것들이 기독교의 역사적 확대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목회를 목사의 개인적인 도움 형태의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종교개혁기에 대두되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견해는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등 고전 목회신학자의 목회사상을 연구해 보면<sup>49)</sup> 목회의 개념이 그렇게 미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바로 밝혀진다. 다시 말하면 일부 신학자들처럼 목회의 개념을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칼뱅의 교회훈련이 갖는 목회적 패러다임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목회신학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칼뱅의 교회훈련은 거시적 고전 목회 개념과 종교개혁 이후 미시적 목회 개념을 통합하는 통전적 의미를 가지며, 이 둘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요령식 기능주의 목회방법론으로 대변되는 좌파 목회신학과 가톨릭 목회신학으로 대변되는 우파 사목신학(司牧神學)<sup>50)</sup>의 균형점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이다. 종교개혁 이후에 목회의 핵심은 공동체보다는 개인 영혼의 영적인 삶을 지도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목회적 돌봄의 개인화이며, 모든 기독교인의 목회적 책임론으로의 변화이다. 이것은 경건주의 출현과 함께 보다 더 심화되었고, 현대 복음주의 목회관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칼뱅의 교회훈련이 갖는 목회적 성격은 목회신학적인 면에서 칼뱅 이후에 나타난 경건주의 목회운동에서 나타난 영혼 돌봄의 개인화에 있지 않다.

따라서 칼뱅의 교회훈련은 고전 목회신학과 현대 목회신학을 이어주는 실천신학적인 맥을 가지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최초의 목회신학자인 마르틴 부처(Martin Bucer)<sup>51)</sup>의 목회신학을 이어받은 칼뱅의

49) 황성철, “John Chrysostom의 성직관에 대한 현대 목회신학적 적용,” 「신학지 남」 제290호(2007년 봄호), 137–79.

50) 가톨릭교회 구원론의 핵심인 ‘사제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목신학의 현대적 대표 문헌은 20세기 말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5권으로 발행한 「사목 핸드북」(*The Handbuch der Pastoraltheologie*, 1963–1969)이다.

교회훈련은 단순한 사적인 돌봄의 제도화의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해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어 보다 제도적이고 규정적이고 조직적이었다.<sup>52)</sup> 이러한 교회훈련이 갖는 목회적 돌봄의 제도화는 목회사적인 측면에서 복음주의권의 과도한 목양주의를 지양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 현대 목회신학자의 칼뱅의 교회훈련에 대한 혹평은 개신교 목회신학의 단절성을 강조함으로 고전 목회신학과의 맥을 끊어 놓을 우려가 있다.

### 3) 목회신정론에의 공헌

칼뱅의 교회훈련은 목회신정론(牧會神正論, pastoral theodicy) 분야에 큰 공헌을 하였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교회에 신랄한 반대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목회신정론의 문제는 목회의 중심과제이다.<sup>53)</sup> 사실 목회현장에서 목사의 가장 큰 딜레마는 어떻게 훈육하느냐이다. 교회훈련은 인간적으로 내키지 않으면서도 그 훈육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목사의 사역이다.<sup>54)</sup> 교회갈등을 일으키는 대적자들에 대해 교회를 보호하고 가련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회신학적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바로 목회자 칼뱅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현대 교회갈등론 분야의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칼뱅의 업적을 온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sup>55)</sup>

51) Martin Bucer는 「진정한 영혼 돌봄에 관하여」(Von der wahren Seelsorge) (1538)를 독일어와 라틴어판으로 출판하였다. Cf. John T. McNeill, *A History of The Cure of Souls*(London : SCM Press, 1952), 177.

52) Charles V. Gerkin,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유영권 역, 「목회적 돌봄의 개론」(서울 : 은성, 1999), 48–49.

53) Guy Greenfield, *The Wounded Minister : Healing from and Preventing Personal Attacks*, 황성철 역, 「상처입은 목회자」(서울 : 그리심, 2004), 148–150. Cf. Gilmore, *Pastoral Politics : Why Ministers Resign*, 146.

54) Joy P. Gage & Kenneth G. Gage, *Restoring Fellowship*(Chicago : Moody Press, 1984), 9.

55) Hugh F. Halverstadt, *Managing Church Conflict*(Louisville : Westminster/

목회신정론의 신학적 원리는 근본적으로 목회사역이 질서의 사역이라는 칼뱅의 목회신학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질서의 사역은 칼뱅의 신학에 있어서 ‘율법의 중재자로서 그리스도’(Christus Mediator Legis)를 질서의 개념으로 설명한 신학자들에 의해 오히려 인식되었다.<sup>56)</sup> 목회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서를 실천하는 것임으로 질서 프라시스(order praxis)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악에 대하여 교회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목사의 임무와 관련이 있다. 교회통치(church government)의 개념으로서의 교회훈련은 이 질서 실천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며 목회자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줌으로 목회적으로 ‘대적사역’(confrontation ministry)을 가능하게 한다.

필자는 목회신정론의 차원에서 칼뱅만큼 방대한 목회신학적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없다고 평가한다. 칼뱅은 교회갈등을 일으키는 소위 ‘목사 킬러들’(clergy killers)<sup>57)</sup>과 ‘적대자들’(antagonists)<sup>58)</sup>에 대해 교회를 보호하고 가련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해 주었다. 동시에 그는 교회 안의 대적자들도 역시 적극적 목양 대상이기 때문에<sup>59)</sup> 교회통치의 대적사역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칼뱅은 양

John Knox Press, 1991). Kenneth C. Haugk, *Antagonists in the Church : How to Identify and Deal with Destructive Conflict*(Minneapolis :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8). G. Lloyd Rediger, *Clergy Killers : Guidance for Pastor and Congregations under Attack*(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56) Byung-Ho Moon, *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 Calvin's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Rule of Living and Life-Giving*(Whynesboro, GA : Paternoster, 2006), 84–122.

57) Rediger, *Clergy Killers*, 8.

58) Haugk, *Antagonists in the Church*, 25.

59) Comm. John 10 : 16. Cf. 칼뱅의 경우는 교회를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의 개념을 부정한다. 따라서 칼뱅에게는 목양의 대상으로서 양들은 실질적 의미의 목양 대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형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양들이냐의 문제이다. 그는 교회 안에 많은 이리가 있는 것

떼를 좋은 꼴로 봉사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했다.<sup>60)</sup>  
그는 이것을 ‘용기’(courage)의 개념으로 설명했다.<sup>61)</sup>

그러므로 칼뱅은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고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하나님을 적대하며 싸움을 하는 행위가 된다고 강조한다.<sup>62)</sup> 이것은 목회신정론과 맞닿아 있다. 칼뱅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고난을 당하도록 혀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기다리도록 하셨다고 하였다.<sup>63)</sup> 그러므로 칼뱅은 교회 내부의 적들<sup>64)</sup>에 대해 단호히 대적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관용의 한계’(the limits of toleration)<sup>65)</sup> 내에서이다. 칼뱅은 그의 사역에서 실제로 수많은 관용의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sup>66)</sup>

## 5. 칼뱅의 교회훈련에 대한 목회 실천적 적용

칼뱅의 교회훈련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도 성도들의

처럼 교회 밖의 많은 양이 있다는 어거스틴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60) 박건택 편역, 칼뱅작품선집 제V권(서울 :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232. Cf. *Comm. Jer. 23:4; Acts 4:20.*

61) *Comm. Mic. 3:8; Acts 23:17.* W. Stanford Reid, “John Calvin, Pastoral Theologian,” *Reformed Theological Review* vol. XLII, No. 3 (September–December 1982), 67.

62) *Comm. Num. 16:11.*

63) *Comm. Ps. 115:3.*

64) *Comm. Ps. Preface.*

65) Paul Woolley, “Calvin and Toleration,” in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5, ed. Richard C. Gamble (New York : Garland Publishing, 1992), 192.

66) John Calvin, “To Philip Melanchton,” Letters, Parts 1 in *Selected Work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 4, eds. Jules Bonnet (Philadelphia :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58 ; reprint,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3), 374 ; “To Bullinger,” 113 ; “To Farel,” 89.

삶에 대해 교회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지도가 가능한가?”이며, “교인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목회적인 관점에서 교회 전체의 유익과 성도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훈육을 할 수 있느냐?”로 요약된다. 필자는 칼뱅의 교회훈련을 현대 목회에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첫째, 현대 목회자는 목양(shepherding)과 구조(structure)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sup>67)</sup> 목회자들은 교회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회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교회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교인들의 삶과 고백이 복음의 가르침과 교훈에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교, 제직수련회나 장로수련회, 그리고 제자훈련 커리큘럼에서 신앙의 내용만이 아니라 신앙의 그릇도 함께 교육하여야 한다. 칼뱅은 설교와 심방을 통해 형제들이나 목사들이 훈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68)</sup>

둘째, 교회훈련의 주체로서 당회의 운영을 칼뱅과 같이 진정한 목회 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오늘날 당회는 교인들의 신앙 성숙과 훈련보다는 교회재정의 사용과 교회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 같은 의결기구화 되어 있거나 고도의 목사중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통법화 기관으로 전락하여 교인들의 신령적 형편을 살피지 못한다. 현대 목회에서 교회가 칼뱅 시대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훈련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당회의 권위를 스스로 높여 칼뱅과 같이 문제 있는 교인들을 소환하여 사랑으로 권고하고, 권면하며,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권징하는 당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목회적 돌봄에서 양육적 훈육을 실천하여야 한다. 오늘날 목회

67) David W. Hall, “The Pastoral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Church Government,” in *Paradigms in Polity :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ed. David W. Hall & Joseph H. Hall (Grand Rapids : Eerdmans, 1994), 12–34.

68) *Inst.*, IV, 12, 2.

현장은 과도한 양육 시스템을 강요하는 현상이 주류화 되는 경향이 있다. 교인들을 끊임없이 달래 주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된다는 흐름이 목회 현장에서 나타난다. 성경공부나 제자훈련, 셀 훈련 등을 통한 양육은 변성하고 있지만 훈육으로서 교회훈련은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개인적 대화 중심의 경박한 복음주의 목회관 때문에 칼뱅의 목회적 훈련은 더욱 현대 교회에 요청된다. 교회훈련을 제외한 채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mutuum colloquium)<sup>69)</sup>에 집중하는 목회로는 바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넷째, 예배에서의 적용은 사죄선언이다. 예배신학자 폰 알멘(Jean-Jacques von Allmen)은 권징이 사라진 현대 교회에 칼뱅의 사죄선언은 그 의미가 무력화되었다고 평가한다.<sup>70)</sup> 폰 알멘에 의하면, 그 이유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교회훈련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만 사죄선언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교회훈련이 지지되지 않는 채로 개혁교회에 남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는 지나치게 고백을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고, 목회적 차원에서는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해야 할 실천이 미흡하다고 칼뱅 전통의 예배의 구성요소를 무조건 없애 버릴 수만은 없다.

다섯째, 교회훈련을 권징의 차원에서 지혜롭게 실천하여야 한다. 지역회의 판결은 그 법적 효력이 전국 교회에 미침으로 현실적으로 교인이 떠난다고 교회훈련을 포기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칼뱅의 방법대로 목회적인 사랑의 교정책으로 권징을 하여야 한다. 교회훈련은 회개의 부족 때문이며, 죄를 대적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69) Thurnysen,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목회학원론」, 32.

70) 예배의 요소에서 사죄는 목사의 성직자적 선포(문안인사, 사죄, 축복) 중 하나이다. ‘용서의 선언’으로서의 사죄는 칼뱅의 예배 실천에서 아주 독특하다. 이것은 칼뱅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인데 용서의 선언으로서 전체 회중에게 선포되는 사죄(absolution)는 17세기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Cf. Jean-Jacques von Allme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예배학원론」(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79), 143.

기 때문에 ‘교정’과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sup>71)</sup> 그 방법은 칼뱅이 단계별로 제시한 대로<sup>72)</sup> 마태복음 18:15~27의 단계를 지켜야 한다: 즉, 첫 단계는 사적인 개인적 대면(private personal confrontation), 둘째 단계는 사적인 그룹 대면(private group confrontation), 셋째 단계는 공적인 협동적 대면(public corporate confrontation), 그리고 마지막은 공적인 협동적 행동(public corporate action)이다.<sup>73)</sup> 이러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sup>74)</sup>

여섯째, 대적사역의 차원에서 교회훈련을 잘 실천하여야 한다. 칼뱅에 의하면 교회는 항상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때때로 봉해진 어두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sup>75)</sup> 그러나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너무 순진하게 대했다가 목회적 소명과 꿈이 좌절된다. 미국의 경우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두거나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다.<sup>76)</sup> 칼뱅의 교회훈련의 신학은 목회자를 강하고 용기 있게 하며, 목회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대항하는 용기를 줄 것이다. 특히 목회권을 침해하는 교인들의 ‘목사해소제도’(牧師解消制度)에 대해 칼뱅은 부정적이다.<sup>77)</sup> 오늘날 민주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교회 등 현대 교회들의 ‘목사해소제도’의 상황에서는 칼뱅의

71) Joseph Flatt, Jr., “How Shall I Respond to Sin in the Church? : A Plea to Restore the Third Mark of the Church,” in *Reforming Pastoral Ministry : Challenges for Ministry in Postmodern Times*, John H. Armstrong(Wheaton : Crossway Books, 2001), 231.

72) *Inst.*, IV, 12, 2.

73) Flatt, Jr., *Reforming Pastoral Ministry*, 228. 이 단계에서 목사가 유의할 점은 가능한 한 자신이 훈육의 첫 시행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목회적 지혜라는 점이다.

74) Ibid., 224.

75) Ibid., 235.

76) Comm. Ps. 68:13.

77) Greenfield, *The Wounded Minister*, 「상처 입은 목회자」, 133–147.

78) Comm. 1 Tim. 5:22; Comm. 1 Tim. 5:19.

교회훈련의 프락시스는 존재하기 어렵다.<sup>79)</sup>

마지막으로 칼뱅의 교회훈련의 실천적 가능성과 관련하여 교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스스로 교회의 권위와 목사의 권위를 세워 나가야 해결될 문제이다.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장별로서 권징’은 교회 난립과 관련하여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미래의 연구 과제이다. 교단 내에서는 교회훈련에 대한 재판 자료들을 총회 차원에서 판례화하여 지교회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 예방적 교회훈련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난립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칼뱅의 ‘두 눈 이론’의 차원에서 국가의 종교정책을 재고해 보아야만 한다.<sup>80)</sup>

## 6. 결 론

필자는 본 논문에서 목회자 칼뱅의 교회훈련의 본질과 실제가 무엇인지 목회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이 점에 대해 현대 목회신학자들은 일부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교회훈련이 단순히 징계와 치리의 차원을 넘어 매우 포괄적인 목회적 본질과 실천적인 함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필자는 칼뱅의 교회훈련을 오늘날의 목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뱅의 교회훈련의 실천적 가능성의 문제와 관련 미래의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79) 대법원은 2006년 4월 20일 5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여 기존 교인 3분의 2 이상이 새 교회를 세우면 기존교회의 재산권을 갖는다는 민법상 교회재산의 총유(總有) 개념을 수정함으로 그동안의 목사해소제도 불인정에 대한 돌파구를 국가가 마련한 셈이다. Cf. 동아일보, 2006년 4월 22일자 1면.

80) 교회의 부패를 정부가 막는 현상을 칼뱅은 원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하나이고 국가와 교회는 법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리처드 후커(Richard Hooker)의 사상을 21세기 교회는 칼뱅의 교회훈련의 실천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시 음미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칼빈의 교회훈련은 넓은 목회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베노아(Jean Daniel Benoit)가 이해한 칼뱅의 목사관과 같이 “영혼의 목자”<sup>81)</sup>인 목사의 사역을 교회의 권위적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칼뱅은 말씀과 성례가 교회의 본질적 표지이지만 제3의 교회의 표지가 ‘교회훈련’임을 함축하고 있다.<sup>82)</sup> 칼뱅의 교회훈련은 현대 목회에도 여전히 죄를 대적하는 목회적 방법이며,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초석이다.<sup>83)</sup>

81) Jean Daniel Benoit, *Calvin Directeur D'âmes*(Strasbourg : Oberlin, 1947), 11-18.

82) Flatt, Jr. *Reforming Pastoral Ministry*, 221. Inst., IV, 1, 10-22 ; 12, 1-3.

83) Ibid., 237.